

인터넷 속에 책이 있다

웹@매니아는 국내외 인터넷 솔루션의 벤치마킹을 비롯해 솔루션 리뷰, 디렉토리 서비스, 뉴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 사이트(www.webmania.co.kr)이다. 본 코너에서는 웹@매니아에서 제공하는 벤치마킹 소식을 게재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 선택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 서점의 사이트별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책 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책을 보면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해법이나 조언들이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런 책들은 어디에 있는가? 서점에 있다. 또 인터넷에도 있다. Amazon.com을 아는가? 굳이 'Amazon.com 성공의 비밀' 이란 책을 읽어보고, 전자상거래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로 꼽고 있는 Amazon.com이라는 기업은 인터넷으로 책을 팔아 성공한 회사이다.

그많은 물건들 중에 왜 하필이면 책일까? 일단, 책은 고를 때 만져보거나 맛을 보거나 촉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다. 즉 단지 사진과 그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상품의 구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큰 서점을 하루종일 찾아 헤메이지 않아도 몇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거나, 이미 그 책을 사서 읽은 이들의 서평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특히 원서를 사려고 하거나 희귀 서적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서점은 무척이나 편리한 도구일 것이다. 물론 책을 많이 사는 이들에게는 꽤 짝퉁한 마일리지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서점에 따라서 적립금제, 누적할인제, 공동구매, 상설할인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곳의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책을 구입하는 습관에 따라서 꾸준히 많이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립금제, 누적할인제를 실시하는 서점을, 가끔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에 할인을 많이 해주는 서점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 나라의 인터넷서점들

그럼 우리나라에는 몇군데의 인터넷서점이 있을까? 또, 어떤 인터넷서점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네티즌을 공략하고 있을까? 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온라인 서점 카테고리에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서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웹@매니아는 많은 서점들 중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이미 확보부동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서울문고와 온라인 상에서 그 범위를 넓여가고 있는 YES24, Wowbook, 북파크를 살펴보고 각 사이트의 특징을 비교해 봤다.

- 사용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교보문고
- 국내 최초의 인터넷서점 인터넷 종로서적
-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 영풍문고
- 이름만큼 훌륭하지 못한 서울문고
- 국내에서 가장 싼 인터넷 서점 YES24
- 컴퓨터 관련 전문 서점 와우북
- 우송료가 무료인 북파크

웹@매니아 선호도 조사

웹@매니아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진행한 자체 설문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487

<표> 국내 인터넷 서점 선호도

[설문] 가장 자주 가는 인터넷 서점은?		
교보문고		199 40.9%
종로서적		54 11.1%
영풍문고		35 7.2%
서울문고		6 1.2%
YES24		53 10.9%
와우북		112 23.0%
북파크		28 5.7%

명이 참가했다. 결과에 의하면 아직 인터넷 브랜드가 기존 매체의 브랜드를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느껴지는 조사였다. 그러나 YES24, 와우북, 북파크와 같은 인터넷 브랜드가 가격적인 장점과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무장하여 약진하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다.

● 국내 인터넷 서점 비교

1. 교보문고센터

- 홈페이지 : <http://www.kyobobook.co.kr/>
- 오픈일자 : 1997년 9월 9일
- 보관장서 : 총 50만종 230만권 보유
- 회원관리 : 무료 평생 회원제 (회원증 발급)
- 택배비용 : 국내의 경우 1만원 이하면 1,250원, 1만원 이상은 무료, 해외는 전액 회원 부담
- 소요기간 : 국내 택배 2~3일, 등기우편 3~5일 배달(주말 제외), 해외는 국가별 차이
- 대금결제 : 신용카드 / 온라인입금 / 예치금결제
- 특징 : 교보북클럽, E-Mail 맞춤 도서목록 제공



◀ 교보문고 홈페이지 화면

'99 한국 전자상거래 대상, 전문 쇼핑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교보문고는 오프라인에서 다음에 비교할 종로서적과 함께 국내 대형 서점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찾기에 아주 좋은 사이트이다. 특히 친절환 고객센터는 기억에 유난히 남는 곳이다.

책을 찾는 방법으로는 키워드 검색과 분야별 찾기를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은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ISBN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나 정확한 입력이 아니면 원하는 책을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분야별 찾기는 책의 분야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의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가정/가사/여성, 경제/경영, 관광/여행, 교육학, 기술공학, 문학, 미술/사진, 사전/잡지, 사회학/민속학, 수험서, 순수과학, 스포츠/취미실용, 어린이, 어학, 역사/전기, 연극/영화, 의학, 음악, 정치학/법학, 종교, 중고학습서, 철학, 총류/참고류, 컴퓨터 등으로 세분화된 카테고리에 의해 원하

는 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베스트셀러에서는 주단위로 베스트셀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도 베스트셀러를 조회할 수 있다. 매 분야별로 20위까지 제공하며 바로 주문가능하다.

새로 나온책에서도 역시 분야별로 새로 나온 책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문학상 수상작 모음, 화제의 새책, 어린이 새책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추천도서에서는 일반 추천도서, 분야별 추천도서, 좋은책 120선, 겨울방학 특선으로 제공된다. 구간염가도서는 국내 출판사들의 책을 북클럽 회원에 한해 염가에 판매하고 있는 코너로 최고 50%까지 할인된다. 단, 조기 품절될 수 있다.

또한 지구촌책정보지라는 웹진을 운영하여 저자 인터뷰, 최재봉 기자의 문학 산책, 콩트, 영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모든 책에는 출판사 서평, 신문 서평, 그리고 독자의 서평이 들어가며, 주/월/반기별로 우수 서평을 뽑아 최고 50만원까지의 상금을 주고 있다. 단, 서평은 최소 300자 이상이어야 한다.

출판사 서평은 법인으로 가입된 출판사에 의해 쓰여지며, 신문 서평은 신문을 통하여 소개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2. 인터넷 종로서적

- 홈페이지 : <http://book.shopping.co.kr/>
- 오픈일자 : 1997년 5월 (국내 최초)
- 보관장서 : 총 20만종 180만권 보유
- 회원관리 : 무료 회원제 (Hello Seoul 회원)
- 택배비용 : 국내의 경우 1만원 이하면 1,200원, 1만원 이상은 무료, 해외는 전액 회원 부담
- 소요기간 : 국내 지역에 관계없이 3~4일 배달, 배송 상황 조회 가능
- 대금결제 : 신용카드/온라인입금/ICash
- 특징 : 심마니 검색엔진 채택으로 인한 유사어 검색 가능, (주)대흥기획의 Hello Seoul의 회원이므로 인터넷롯데백화점, 티존, 뮤직랜드, 카렉스, 코스메틱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구매액의 2% 적립 적용. ICash 사용시 사용금액의 5%를 ICashBack



◀ 인터넷 종로서적 홈페이지 화면

'99 한국 전자상거래 대상과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을 획득한 인터넷 종로서적은 국내 최초의 인터넷서점으로 알려져 있다. (주)

대흥기획의 Hello Seoul의 가족으로 Firewall(방화벽)과 SSL(Secure Socket Layer)를 이용한 보안 장치는 한결 더 믿음직하게 보인다.

인터넷 종로서적은 전문 광고대행사의 도움으로 구축된 사이트답게 사용자와 아주 친숙한 UI(User Interface)를 갖추고 있다. 책제목, 지은이, 출판사, ISBN으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과 자세히 찾기는 한글 검색으로 유명한 심마니의 검색엔진을 채택하여, 국내 인터넷서점 중 유일하게 유의어, 맞춤법 확장, 복합 명사 분리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다. 책 제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라면 인터넷 종로서적의 검색기능이 아주 유용할 듯하다.

바로 초기메뉴에서 찾아갈 수 있는 분류별 책찾기에는 인문, 종교, 사회, 자연, 기술, 예술, 언어, 문학, 총류, 아동/학습, 외서 등의 비교적 간략한 구조로 분류되어 있다.

베스트셀러는 역시 주단위의 베스트셀러를 제공하며, 전체종합, 소설종합, 국내소설, 국외소설, 수필.비소설, 시, 인문과학, 경제, 경영, 외국어, 자연과학, 컴퓨터, 건강, 예술, 어린이, 기독교, 여성.실용서 등의 베스트셀러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은 매일 매일의 신간을 안내해 주는 페이지로, 현재의 신간 서적의 수를 알려줌으로 아주 편리하다. 또한, 신간목록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신간을 검색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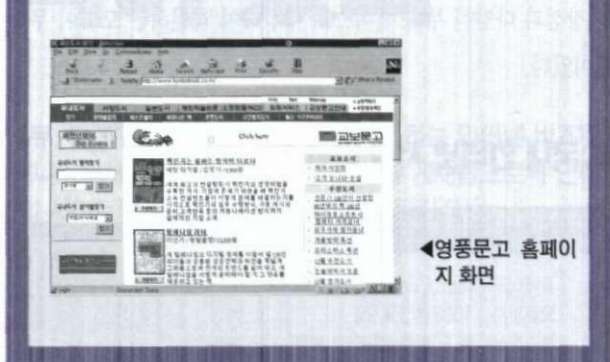
화제의 책은 Gift Books, 어린이 권장도서, 영화속의 책, 중앙일보 선정 좋은책 100선 등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서점을 통하여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 Gift Book 코너는 무척 재미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인 인터랙티브를 잘 살린 독자서평보기코너는 각 책마다 올려진 독자들의 서평들을 모아 하나의 게시판 형태로 꾸며 놓아, 서평만 읽으면서도 재미나게 서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영풍문고

- 홈페이지 : <http://www.yppbooks.co.kr/>
- 오픈일자 : 1997년 6월 1일 (국내 최대)
- 보관장서 : 국내 30만건, 외국서적 170만건 보유
- 회원관리 : 무료 회원제
- 택배비용 : 국내의 경우 1만원 이하면 1,000원, 1만원 이상은 무료, 해외는 전액 회원 부담
- 소요기간 : 국내 지역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3~4일
- 대금결제 : 신용카드 / 온라인입금

· 특징 : Barne&Noble과 일본출판판매의 '本やタウン' 및 유럽 Bertelsmann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점 (99/12/01), 음반 및 문구의 구매 가능



◀영풍문고 홈페이지 화면

이번 주제의 서두를 장식했던 Amazon.com에 대항해서 인터넷서점업계에 뛰어난 미국내 최대의 서점인 Barne&Noble의 'bn.com'과 일본최대의 출판도매상인 일본출판판매의 '本やタウン', 그리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그룹인 독일의 Bertelsmann의 'bol.com'과 전략적 제휴를 한 영풍문고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점으로 자리 잡았다.

키워드검색을 비롯, 국내도서검색, 보유양서검색, 일본도서검색, 분야별도서검색, 해외주문도서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불리언검색과 가중치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만약 검색을 통해 영풍문고에 없는 책임을 확인했다면, 구매예약을 통하여 주문할 수도 있다.

베스트셀러는 오픈한 다음달인 99년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주단위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간안내는 신간서적안내와 목록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썸 보기좋은 UI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추천도서에서 재미있는 것은 출판사 추천과 자체 추천도서에, 회원별 추천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회원들의 가입정보와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관심분야의 추천도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화되가는 인터넷서비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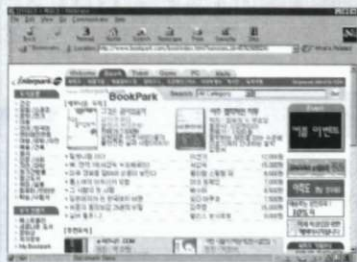
영풍문고는 음반/문구 코너를 통하여 음반과 문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음반(CD)의 경우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문구의 경우 최고 15%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행사안내 및 공연안내 게시판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간의 자연스러운 정보교환을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보인다.

Review Center

4. 서울문고

- 홈페이지 : <http://www.seoulbook.co.kr/>
- 보관장서 : 30만여종 보유
- 회원관리 : 무료 회원제
- 택배비용 : 국내의 경우 1만원 이하면 1,250원, 1만원 이상은 무료
- 소요기간 : 국내 지역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3~4일
- 대금결제 : 신용카드 / 온라인입금



◀서울문고 홈페이지 화면

국내 IT관련 전시회를 많이 찾아 다니는 분이라면 서울문고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전시회의 메카와도 같은 COEX 입구에 있는 깔끔한 서점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의 서울문고는 그저 그저 구색을 갖추는데 급급한 것 같다.

책찾기 코너에서는 도서명, 저자/역자, 출판사, 주제어 검색이 동시에 가능하다. 메인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쉽게 찾기보다는 좀 더 정교한 검색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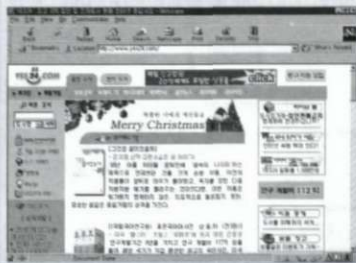
분야별 찾기에서는 사전, 잡지, 아동, 학습, 취미 실용, 예술, 문학, 외국서적, 한국안내서, 인문사회, 종교, 외국어, 자연공학, 정치 법률, 경제 경영, 정기간행물, 컴퓨터의 구분으로 찾아 볼 수 있다.

고객주문요청 코너는 서울문고에서 검색을 못 했거나 구매가 안되는 책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코너이다. 다른 서점들에 비하여 비교적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보유 장서의 부족으로 인한 배려(?)가 아닐까 느껴진다. 신간서적과 베스트셀러의 경우 타 서점들과 큰 차이없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나 불량 링크가 눈에 많이 띄어서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이한 점이라면 해외도서 주문안내 코너를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인데, Amazon.com에서 검색하고 주문은 서울문고로 하라는 내용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인데 Amazon.com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5. YES24

- 홈페이지 : <http://www.yes24.com/>
- 회원관리 : 무료 회원제
- 보유회원 : 약 2백만명
- 택배비용 : 구매액에 따라 2,000~4,000원, 컴퓨터서적 1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 소요기간 : 국내 지역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3~4일
- 대금결제 : 신용카드 / 온라인입금 / ICash
- 특징 : 최대 할인폭 (30%), 전자 도서 판매, 1대1 문의처리 시스템, ICash 도입 및 ICashBack



◀YES24 홈페이지 화면

YES24는 국내에서 가장 싸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서점이다. 앞서서 살펴본 서점들과 다른 점이라면 매장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서점들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책을 파는 곳이라기 보다는 책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쪽에 주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료로 운영되는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주 신간도서에 대한 안내 메일과 주기적인 공동구매에 대한 혜택(5% 할인), 이벤트 및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원ID는 YES24가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종류/사천류, 종합교양지/잡지, 인문, 종교, 사회, 증권/주식/복권, 순수과학, 응용과학, 컴퓨터, 문학, 문화/예술, 성(性), 언어, 영어, 학습/교육교재, 어린이(초등학생), 만화 등으로 분류된 분류검색이나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으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검색에서도 인터넷 전문 서점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화제의 책과 새책안내는 인터넷의 수시성을 살려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며, 주단위로는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조회할 수도 있다.

출판뉴스는 출판계과 관련된 뉴스를 클리핑하는 코너로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클리핑 뉴스를 골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또한, 매월 우수작을 선정하여 최고 20만원의 상금을 주고 있는 독자 리뷰 코너도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6. 와우북

- 홈페이지 : <http://www.wowbook.com/>
- 회원관리 : 무료 회원제
- 택배비용 : 회원은 배송비용 할인 및 면제, 비회원은 3,000원(택배), 1,500원(등기)
- 소요기간 : 국내 지역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3~4일
- 대금결제 : 신용카드 / 온라인입금 / ICash
- 특징 : 상설아울렛(최대 50%), 묶음판매, 공동구매, 대량구매 등



◀와우북 홈페이지 화면

와우북은 IT(Information Technology)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전형적인 인터넷서점이다. 주로, 컴퓨터 & 인터넷에 관련된 서적을 다루다보니 다른 인터넷서점들에 비하여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원서를 취급하다 보니, 대부분의 메뉴가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PowerSearch는 Title, Author, Publisher, ISBN, Power Search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책제목, 작자명, 출판사, ISBN로 검색할 수 있으며, PowerSearch는 원하는 키워드를 “”로 구분하여 입력해주면 유사어를 검색해 준다.

Browse Subjects는 분류별 검색을 뜻하며, 사전/총람, 잡지, 교양/입문서, 비즈니스, 수험서, OA관련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New Version이라는 서브메뉴를 통하여 매일 새로 등록되는 서적들의 정보를 보여준다.

Best Sellers는 국내외 서적을 가리지 않고 1개월동안의 와우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페이지로 20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물론 국내서적 20위와 외국서적 20위, 그리고 각 분야별 Best Top5도 조회가능하다. 특히, 와우북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코너인 Sale Corner의 상설아울렛에서는 2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된 서적을 구매할 수 있다.

Book coordinator 코너는 상당히 재미있는 메뉴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 각각의 게시판을 통하여 북 리뷰 및 질의/응답을 처리하고 있다. 물론, 해당분야의 코디네이터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어치의 ICash를 지급, 도서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와우북 독점수입코너에서는 JAVA, Software Engineering, Business, Programming, Database, Multimedia, Network, Certification 분야 등의 직수입 서적을 한곳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원서를 찾아보기 좋도록 해주었다.

독자 서평은 게시판에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매월 초 4명 내외의 와우북 회원들로 선정하여 1만 7천원 상당의 ICash를 지급하고 있다.

7. 북마크

- 홈페이지 : <http://www.bookpark.com/>
- 회원관리 : 무료 회원제 (소핑게이트웨이, 북파크 공동사용)
- 택배비용 : 무료
- 소요기간 : 직영점, 가맹점을 이용한 배송 처리, 구매일로부터 2~3일
- 대금결제 : 신용카드 / 온라인입금 / 사이버캐시
- 특징 : 무료 배달 서비스, 출판 예정중인 서적에 대한 예약 판매



◀북마크 홈페이지 화면

국내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서 서비스하는 북파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인터넷서점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형태이다. 즉, 전국적인 직영점과 가맹점을 두어 별도의 배송에 관한 처리가 불필요하므로 한권을 구매하더라도 택배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다.

베스트셀러는 분야나 기간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 10종을 소개하고 있다. 새로 나온 도서는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는데, UI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학상이라는 특이한 코너는 노벨문학상, 이상문학상, 소월시문상 등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한 책들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어 문학도에게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것 같다. 저자정보라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데이터의 양이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듯 하다.

없는 책 주문은 북파크에 없는 서적들을 주문할 수 있는 코너이다. My BookPark는 회원정보에 의해 다양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코너로 1:1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